



주 제:	“주님께 영광을.”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2007년 6월 24일
복음 묵상:	루가 1,57-66.80	이사 49,1-6	사도 13,22-26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두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자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관심과 소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곧 종보다 더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드러내기 위해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로 들어 높일 수 있었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우리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주 천정기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 현황**  
지난 주에는 합창부분에서는 경복궁 라령, 옹해야 와 Gloria #1- # 12 를 3시 까지 연습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함께 하여 주신 지휘자님, 도미니카 자매님과 모든 단원께 감사드립니다.
- **입단 환영.** 지난 주에 김영옥 안젤라 자매님과 Pleasanton 에 사시는 신계환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입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 드리며, 새로 입단하신 단원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동점

- 이대원 요한 형제님 바쁜 여정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Vivaldi Gloria 를 각 파트별로 편집 녹음하여 각 단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욱 열심히 감사하며 연습해 주시고 기도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은 연기 되었습니다.
- 다음주 부터는 화답송을 목동성당의 박현미 세실리아님 작곡하신 곡을 중단하고 과거의 신상오 신부님이 작곡하신 화답송 곡목에 개정된 시편을 최남숙 멜라니아 자매님이 친필로 삼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멜라니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구영조 사도 요한형제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어 이곳에 있는 동안의 성가대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함께 생활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 기도 요청

- **30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습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죽영명축일** 양형원 바오로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이 6/29(금)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총 내려주시길 주님께 청해주십시오. 축하식은 6월 24일 (일)교중 미사중에 있겠습니다.

#### 4. 휴가 예정자

본당 창립 30 주년 기념식까지 가능한대로 휴가를 9월 이후로 밀어 주시어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흥진 데레사: 6/28-7/16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7/1
- 조 경자 율리안나: 7/1
- 최 상진 엘리자벳: 7/8-7/15
- 신 행주 요세피나: 7/29-8/5
- 최 주님 예로니모: 7/30-8/6
- 최 효원 도미니카: 7/30-8/6

#### + 복음 [루가 7,36-8,3]



“5-3=2 와 2+2=4”

따스한 글 ('좋은글' 중에서)

(5-3=2)란 어떤 오해(5)라도 세 번(3)을 생각하면 이해(2)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2+2=4)란 이해(2)와 이해(2)가 모일 때 사랑(4)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 오해는 잘못도니 결과를 가져옵니다. (5-3=2)라는 아무리 큰 오해라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풀이가 새삼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영어로 "이해"를 말하는 "understand"는 "밑에 서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이해가 모여 사랑이 된다는 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이해인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3=2)와 (2+2=4)란 단순한 셈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 온갖 오해를 따뜻한 이해로 풀어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에 오해라는 것이 참 어쭙잖게 하찮은 일로 오해가 생깁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경우가 있고 또 무조건 선입견의 감정으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해"라는 엉킨 실타래가 생겼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 코린 11,24)

“This is my body that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